

국립전주박물관 『상설전시 핸드북』 시안 참고자료

2026.2.

□ 서예문화실

우리나라 전통 서예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전시공간입니다. 옛 서예가들의 다양한 작품과 전북지역 작가의 서예·문인화를 통해 역사·문화적 맥락과 미적 가치를 함께 느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종이와 붓, 먹 등을 ‘서예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품을 만날 수 있으며, 직접 글씨를 써 볼 수 있는 미디어아트 공간 ‘글씨의 정원’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초서12폭병풍 / 草書十二幅屏風 / Lee Jeongjik's calligraphy

이정직李定稷(1841-1910)

조선 1895년

병풍, 종이에 먹, 각 면 112.3×31.0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구5725

이정직이 唐唐의 시인 위응물韋應物(737-804) 시 4수를 12폭으로 쓴 작품이다. 오색 바탕의 각 폭은 글씨를 보다 감각적으로 보이게 하며, 활달한 필치와 경쾌한 속도감으로 구사한 이 초서는 화려한 바탕과 호응하고 있다. 이정직이 깊이 관심을 두고 영향받은 미불米芾과 동기창董其昌의 서풍 영향을 보이는데, 특히 미불 서풍을 기반으로 한 과감한 운필로써 변화의 묘를 추구하는 듯하다. 대체로 이정직은 작품 속에서 변화를 추구는 한편 함축적인 힘 조절을 보여주는데, 이 글씨에서는 필획의 운용을 통해 활달한 기세氣勢와 자유로운 생기를 잘 표현하였다.

□ 미술공예실

미술공예품은 진리와 일상을 예술로 끌어올린 인간의 숨씨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의식 속에는 삼국시대부터 함께한 불교가 깊게 녹아 있습니다. 불교미술에서는 사찰의 대표 예술품을 마주하며 우리나라 불교에 담긴 정신과 미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자기는 흙, 불, 사람이 하나가 되어 만드는 예술품입니다. 고려청자의 아름다운 유약과 화려한 문양 장식, 분청사기의 일정한 형식과 그와 상반되는 자유분방한 무늬, 백자에 담긴 고상한 품격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공예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쓸모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금속, 나무 등 자연에 있는 재료로 도구를 만든 일상 속 예술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범종 靑銅梵鍾(傳樂壽亭出土) Buddhist Bell

고려, 전체높이 77.1, 전 낙수정, 보물

범음구梵音具는 소리가 나는 악기로 흔히 네 가지 보배[四寶]라고 일컫는 범종梵鍾, 법고法鼓, 운판雲板, 목어木魚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범음구는 소리만 들어도 중생衆生이 구제된다고 여겨 흔히 부처의 말씀에 비유된다.

이 범종은 전주 낙수정樂壽亭(현재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서 나왔다고 전해진다. 일제강점기인 1926년에 낙수정 소유주가 일본 총독에게 기증하여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1999년 다카하라 히미코[高原日美子]씨가 기증하면서 70여 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



분청사기 물고기무늬 항아리

粉靑沙器彫花魚文大壺

Buncheng Jar with incised fish design

조선, 15세기 중반-16세기 전반, 높이 43.6, 고창 용산리

Joseon Dynasty, Middle 15th-Early 16th cent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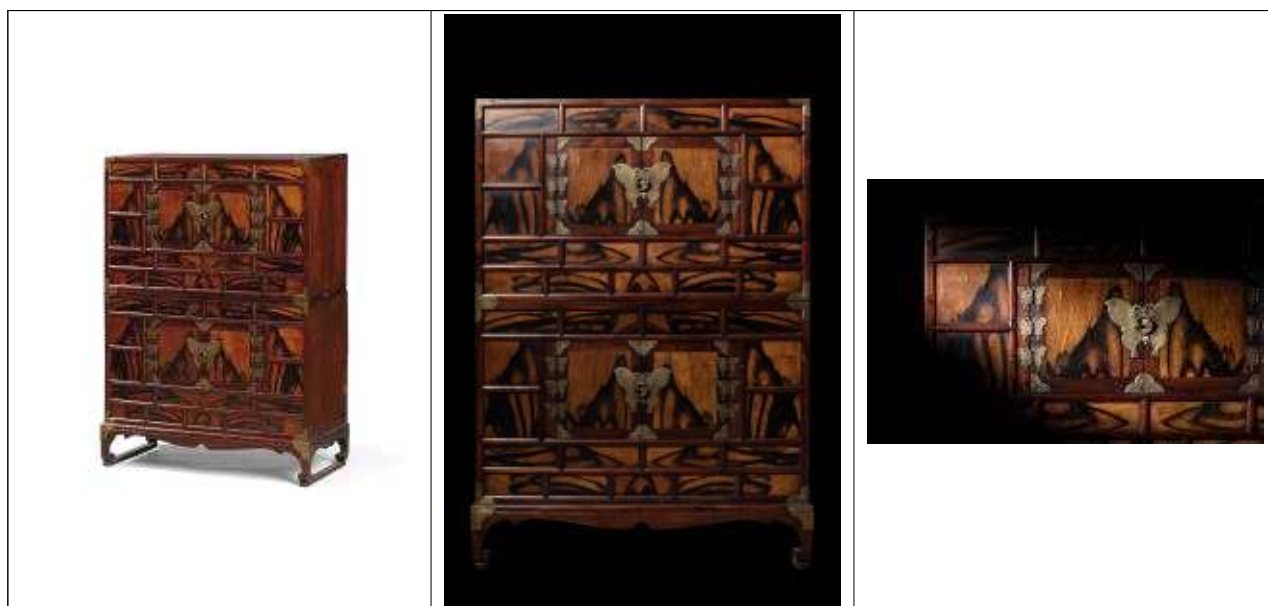
H. 43.6, Yongsan-ri, Gochang

분청사기는 고려 상감청자의 뒤를 이어 조선 초 15-16세기까지 만들어진 도자기이다. 바탕흙과 유약은

고려 말기에 제작된 청자와 비슷하지만, 그릇의 종류나 형태, 문양 구성 등은 확실히 다르다. 조선 초에는 분청사기가 왕실에서 일반 대중까지 폭넓게 사용되었다. 왕실과 관청에서 사용했던 분청사기는 정형화된 문양이 있으며, 관청 이름, 만든 사람 등 여러 정보가 쓰여 있다. 일상에서 사용한 분청사기는 자유분방하고 생동감 넘치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 이후 백자를 점차 즐겨 사용하면서 분청사기는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된다.

청자의 굽은 발목이 드러나지 아니한
예쁜 여자의 발뺨시라면,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靑砂器에 있어선
발목이 드러난 순박한 농민의
발매이다.

고유섭高裕燮(1905-1944)



전주장全州櫥 Clothing Chest

조선, 높이 117.0

전주장全州櫥은 조선시대 전주 지역에서 제작된 목가구로 장櫥과 반단이의 형태가 결합된 가구이다. 전주에서는 전라도 동부 산지의 풍부한 목재를 공급 받아 솜씨 좋은 장인들이 수준 높은 목가구를 생산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부유한 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제작은 더욱 활기를 띌 수 있었다.

전주장은 보통 2층 내지 3층으로 위쪽은 장, 아래쪽은 반단이의 형태이다. 튼튼한 느티나무, 소나무나 나뭇결이 아름다운 떡감나무를 주로 사용하였고, 제비초리, 불로초不老草, 보상화寶相華, 만자근字 모양 등의 금속으로 장식하였다.

□ 전주와 조선왕실실

전주는 조선 왕실의 선조가 살았던 지역으로, 왕실의 본향本鄉이라 불리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았다.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모신 경기전慶基殿을 세우고 왕실의 시조始祖 이한李翰의 사당인 조경묘肇慶廟를 건립하여 전주가 조선 왕실의 본향이라는 뜻을 전했다. 전쟁 중에도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과 경기전의 어진을 수호하며, 전주의 의미와 왕실 문화를 지켜나갔다.



제고지보制誥之寶

대한제국 1897, 높이 8.9cm, 보물

King's Seal of Proclamation of Appointment of Senior Ministers

Korean Empire, 1897, National Museum of Korea

1897년 대한제국 탄생 후 고종의 지위도 국왕에서 황제로 격상되어 호칭, 복식, 의장 등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관직과 각종 문서제작되어 사용되었다. 제고制誥는 황제의 명령을 뜻하며, 제고지보制誥之寶는 정1품에서 중1품의 최고위 관료인 칙임관勅任官을 임명할 때 사용하였다.



신구법천문도 新舊法天文圖

조선 19세기 후반, 비단에 색, 세로 170.3 가로445.0, 보물寶物

Astronomical Chart Showing both the Traditional Joseon and Western Styles

Uniden

tified Artist, Joseon Dynasty, 19th century, Ink and color on silk

National Museum of Korea, Treasure

하늘의 별자리를 묘사한 천문도이다. 동양의 천문도와 19세기 유입된 서양의 새로운 천문도가 나란히 그려져 동서양의 천문 인식을 비교할 수 있다. 오른쪽 끝의 제1폭부터 3폭까지 조선 초기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를 그렸는데 28수 별자리를 비롯해 적도, 황도, 은하수가 다양한 색으로 표현되었다. 제4-7폭에는 황도黃道(지구가 태양을 도는 큰 궤도)를 중심으로 한 ‘북성도’와 ‘남성도’를 표현했고 마지막 제8폭에는 태양, 달, 토성, 목성, 화성, 금성, 수성을 그렸다. 두 개의 성도와 일월오성도日月五星圖는 중국에 거주했던 서양 선교사 쾨글러(Ignatius Kögler, 1680-1746)가 제작한 천문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조선 왕실에서 새로운 천문 지식을 수용하면서 옛것도 함께 익혔던 방식을 보여준다.